비전과 용기

꿈과 비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부모가 자녀의 교육에 직접 간여하는 역할을 중심으로 다룬다. 이제까지는 리더로서 부모의 교육적 역량 강화와 자녀와의 관계에 집중해서 다루었다면, 여기서는 자녀의 교육에 개입하는 일이 중심이다. 자녀의 꿈이 무엇인지, 또 부모로서 어떤 비전을 보여줄 것인지, 가정교육의 목표는 어때야 하고, 그리고 새로운 교육 방식을 도입할 용기의 발휘에 대한 문제를 다룬다.

우선 자녀가 무엇이 되고자 하는지 그 문제부터 검토해보자. 쉽게 말해 자녀의 꿈이다. 아이들은 대개 당대에 잘 나가는 직업이나 미래 공상과학에 나오는 인물을 꿈꾼다. 그리고 그 꿈은 대개 자신의 욕망과 결탁하고, 드물게는 종교나 책의 영향으로 위인을 닮고자 한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탓할 일도 아니다. 일차적으로 사람은 자신의 욕망에 충실하니까.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 꿈도 변한다. 첫째는 사회가 변화고 둘째는 아이가 성장하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자신의 소질과 능력을 따져 보면서 점점 미궁에 빠지기도 한다. 이때야말로 꿈의 진정한 탐색 기간이라 본다. 고등학교 때까지 그래도 괜찮다고 본다. 대학에 들어가서도 찾지 못해 우왕좌왕하는 청년들이 좀 많은가? 부모가 시키는 대로 무작정 입시에 내몰리다 보니 그렇게 된 경우가 허다하다.

사실 그렇게 꿈을 발견해도 제대로 실현될 가능성은 매우 적다. 왜 그럴까? 바로 시대와 또 시대의 가치관이 변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미래는 지금까지 인류가 겪어보지 못한 수준의 빠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인공지능이나 로봇 등의 등장으로 어떤 직업이 어떨지 딱 잘라 좋다 나쁘다고 말할 수도 없다. 미래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복잡하고 다양한 미래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직업을 가지는 일이 다반사라고 한다. 지금도 '투잡', '쓰리잡'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은가?

상황이 이렇다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직업을 염두에 두고 꿈꾸는 일은 좀 아닌 것 같다. 차라리 어떤 인간으로 키울지 그게 중요한 변수로 떠오른다. 이점은 다른 주제여서 뒤에서 다루겠다. 아무튼 어떤 직업보다 어떤 인간이 되어야 할지 꿈꾸는 게 더 현실적이다. 당장은 현실의 직업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밖에 없겠지만.

바로 이 대목에서 선생이 『격몽요결』에서 제시하는 용어인 '뜻을 세운다'라는 입지立志를 소환해 보자. 여기서 선생은 "성인聖仁이 되기를 뜻을 세워야 한다."라고 강조한다. 요즘 사람들의 상식에서 볼 때 공자나 석가나 예수가 되라는 말로 매우 생뚱맞게 들리겠다. 이걸 이

해하려면 성리학의 주요 개념을 알아야 하는데, 일단 넘어가겠다.

다만 성인이라는 말을 지금의 상식으로 이해하기 힘들지만, 일단 인간의 노력으로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어떤 직업 어떤 일에 종사하든 결국 본인이 내면적으로 진실하여 거짓이 없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부끄럽지 않게 행동하여, 자신이 세운 보편타당한 원칙을 위배하지 않을 때 지금이나 미래의 성인 관점에 부합한다고 해두자. 그래서 미래 세계의 가치관에 부합해야 한다. 그 사회에서 살아야 하니까.

이점은 매우 중요하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해도 결국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자기 육신의 쾌락과 안락함만을 추구하는 것과 아니면 공동체 구성원과 상생하는 데 참여하거나 그것을 위해 헌신하는 일은 분명히 다르다. 더 나아가 지구의 온갖 생명체와 우주의 본질과 하나가 되는 것도 차원이 다르다. 결국 어떻게 살 것인지 하는 문제가 본인이 꿈꾸는 것과 관련되며 그 참된 꿈의 끝에 미래판 성인이 기다리고 있다고 보면 되겠다. 그러니까 선생이 말하는 성인 되기는 아직도 유효하다고 하겠다.

선생은 혹자의 말을 빌려 이 성인 되는 학문과 과거시험 공부의 갈등을 말하고 있다. 곧 "과거 공부에 매여서 학문을 할 수 없다."라는 혹자의 주장이다. 요즘 식으로 말하면 시험공부를 하기도 바쁜데 어떻게 인격을 함양하는 공부를 하겠냐는 식이다. 선생의 충고는 "과거 공부하면서도 그 지키는 바를 잃지 않는다면, 과거 공부와 학문이 병행되어 어긋남이 없다."라고 하여, 입시 공부를 해도 올바른 인격을

쌓는데 게으르게 하지 않는다면, 병행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입시 공부에 매달린다고 해서 인격이 더러운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다만 입시 공부만 하는 게 문제가 될 뿐이다.

입시를 통해 무슨 직업을 선택할지 모르지만 어떤 직업이 나에게 주어지든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타인과 소통하고 교감하여 협업으로 가치를 창출하려면 그에 맞는 인성과 능력을 길러야 한다. 바로 이 시점에서 부모는 어린 자녀에게 어떤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비전vision은 보통 미래상, 미래의 전망 등의 뜻을 가지지만, 리더십에서는 조직이 장기적으로 지향하는 목표, 가치관, 이념 등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가정교육에서 비전이란 자녀가 미래에 성공한 모습 또는 그때의 가치관 등을 포함해야 한다. 어린 자녀를 거느린 부모는 자녀의 미래상과 미래의 가치 등을 염두에 두고 꿈을 길러 주며 가르쳐야 한다. 자녀가 어리다면 좀 막연하더라도 미래에 관심을 두고 그때의 일을 꿈꾸게 하는 것이 좋다. 이제 대학입시를 앞에 두고 있는 자녀라면 미래와 관련된 학과를 지망하여 꿈을 구체화해야 하겠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어떤 꿈을 꾸는지도 중요하지만, 그런 미래에 적합한 인성과 능력을 기르는 일이 더 중요하다. 뒤에서 다룬다.

가정교육의 목표

성인이 되라는 선생의 입지立志는 배우는 사람의 꿈이자 동시에 목

표이기도 하다. 그 형식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본다. 성인이 과거의 그것이 아니라 미래사회에서 만인이 공감하고 동조하는 가치에 충실하고 실천하는 사람이라면 미래의 성인이다.

정규 학교 교육에서는 어떤 인간을 육성한다는 규정으로 반드시 교육 목표가 있다. 또 그 배경으로서 '바람직한 인간상'이라는 것도 있다. 그런데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거의 모든 학부모가 대학입시에 온통 관심을 쏟아서, 학교 교육도 거기에 장단을 맞출 수밖에 없다. 그나마 초등학교에서 그 목표를 향한 흉내라도 낼 정도이다. 독자들이 시간을 내서 교육 목표를 검색해보면 알겠지만, 내용 자체는 나무랄 것이 없다. 미래를 대비한 아주 좋은 말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어찌하랴? 있어 봤자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할 뿐인걸.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는 일 그 자체가 실질적 목표가 되어 버렸다.

마찬가지로 가정에도 교육 목표가 있는 게 좋다. 예전에는 가훈이라는 게 있어서 그것이 그 역할을 대신했다. 지금도 있는 가정이 있다. 그런데 그게 대개 짧은 경구警句로 되어서 도덕적인 처세술 같은 내용밖에 담지 못하고, 또 대부분 예전부터 사람들이 사용하던 것이다. 미래사회에 대한 충분한 안내가 될지 솔직히 의문이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내용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그렇게 하려면 미래사회의 특징을 알고 거기에 요구되는 인간상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사실 이렇게 말하지만 보통 사람에겐 벅찬 과제다. 학교의 교육과정을 만들 때는 관계되는 박사급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그래서 그 목표가 그럴듯하게 된다.

일단 보통의 학부모들은 본서가 앞에서 제시한 미래사회의 특징, 그리고 본서의 목차 등을 참고하여 거기에 적응하며 살아갈 아이의 모습을 상상해봐야 한다. 곧 협업역량, 변화나 혁신에 적응, 소통과 공감, 문제해결, 상호 존중, 상상력과 창의력, 통찰력, 판단력과 용기 등이 미래사회에 욕구 되는 인간 능력의 키워드일 것이다.

목표를 구성할 때는 하나의 문장으로 해도 좋고, 법조문처럼 번호를 매겨가며 진술해도 좋겠다. 순서는 영역별로 나열하면 좋은데, 가령 인성적인 면, 지적인 면, 기능적인 면, 행동적인 면 등으로 나누어 진술하는 게 좋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미래사회에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인간을 기른다.

1. 남과 소통하며 타인을 존중하는 인간을 기른다.
2. 창의력과 상상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인간을 기른다.
3. 독서를 사랑하고 한 가지 이상 예능과 운동의 기능을 익히게 한다.
4. 도전하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은 인간을 기른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필자가 예시로 정한 것이지만, 유치원·초중등 과정에 따라 조정할 필요가 있어 학교급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참고하면 되겠다.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NCIC'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또 각자의 가정에서는 아이와 가정의 특성,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희망 사항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문제는 이것과 학교 공부를 얼마나 조화롭게 하느냐이다. 사실 따

지고 보면 학교의 교육과정도 예시한 것처럼 일반적으로 진술되어 있고, 각 교과의 목표도 이 일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다룬다. 다시 말하면 각 교과의 목표가 따로 있어도, 거기서 다루는 지식이나 기능은 이런 일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인 셈이다. 그러니까 국어와 영어와 수학 또 어떤 과목도 교과의 주목적이 그 교과 자체의 논리를 위한 일이 아니라, 인간을 바로 키우자는 데 있다. 그런데 현실은 주객이 전도되어 버린 게 문제이다. 그래서 참다운 인간은 없고 각 교과의 지식을 공부하는 기계만 양산하는 결과가 되어, 결국 붕어빵을 제조하는 교육이 되어 버린다.

그러므로 가정교육에 목표가 있는 게 없는 것보다 낫다. 배의 방향키를 생각해 보라. '학교에서 학원에서 알아서 하겠지.'라고 하거나 '아이들은 알아서 저절로 크는 거지 거기까지 생각할 게 뭐람. 옛날에는 그런 거 없어도 잘만 컸는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글쎄요. 이제 세상은 예전과 달리 너무 빨리 변하므로 변화에 대처하는 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낫다고 본다. 각자의 선택이다.

새로운 교육

교육 목표가 있으면 교육 내용과 방법도 있다. 그것까지 통틀어 교육과정이라 부르고, 영어로는 커리큘럼Curriculum이다. 교육과정은 공식 명칭이다. 교과과정이니 교육 내용이니 하는 말을 쓰면 안 된다. 아

무튼 국가 교육과정은 자주 개정하였다. 그 명분은 새로운 시대에 대처하는 인간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해석해 보면 특정 정권의 이념 또는 정책 방향과 관련이 있다. 특히 군사독재 시절에 더 그랬다. 몇 년 전 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하자고 밀어붙인 일 또한 역사관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가르치려는 꼼수였다. 불발했지만 말이다.

아무튼 국가가 교육과정을 독점하고 거기에 맞춰 교육하라는 일도 요즘 세상에 좀 웃기는 일이기도 하다. 국가공동체의 정체성과 지식과 기능의 표준, 교육의 평등한 기회 확립 등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모든 인간을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내용과 목표로 교육한다는 게 뭔가 좀 어색하다. 국가 주도적 시험, 가령 수능이나 검정고시 등을 위해서 표준화된 수준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그 명분이다. 차라리 의무교육에서 달성해야 할 최종 학력의 최소한의 기준만 정해두고, 자유롭게 가르치는 것이 미래에 더 나을 것 같기도 하다. 그런데 이게 안 되는 이유는 대학입시의 평등과 공정성 때문이다. 결국 보통교육의 발목을 잡는 일이 그것이다. 대학입시의 개혁 없이 교육개혁은 요원하다! 미래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다. 그래서 정해놓은 코스를 똑같이 달리자는 말은 망해도 같이 망하고 흥해도 같이 흥하자는 말밖에 안 된다.

이걸 포함해서 미래를 대비한 진정한 교육 개혁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은 교육 개혁이 어렵다. 그것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하라고 해도 틀림없이 배가 산으로 갈 것이다. 이해관계의 당사자끼리

합의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교육 관련 이해 당사자가 얼마나 많은가? 지금까지 경험으로 봐서 그렇다는 말이다. 교육부와 그 산하 관료들, 학원을 비롯한 사교육 관련 단체, 시민단체, 학부모 단체, 교수 집단, 교사단체는 모두 제각기 그들의 이익을 고려할 수밖에 없으니까 동상이몽이다. 일례로 불필요한 교과 하나 없애는 데도 관련 단체나 개인이 목숨을 건다!

더구나 제도권 교육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교육제도가 잘 갖춰져 있다는 미국의 대학조차도 쓸모 있는 인재를 공급하지 못한다고 불평이고, 더는 학위를 요구하지 않는 기업이 늘고 있고, 심지어 구글 같은 회사는 거기서 제공하는 6개월짜리 온라인 기술 강좌만 이수하면 지원 자격을 준단다.

이러니 모든 학부모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 제도 교육의 한계 때문이다. 미래를 대비한 자녀 교육을 위해 각자도생하는 게 답으로 보인다. 물론 돈이 들지만 그걸 해주겠다는 사교육도 있을 것이다. 돈 안 들고 부모가 직접 하는 일은 스스로 공부하는 수밖에 없다.

각설하고, 새로운 교육이란 무엇일까? 이미 앞서 산발적으로 논의했기에 다시 거론하는 일을 식상하게 느낄 수도 있지만,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다. 그것은 곧 미래를 대비한 교육이다. 미래란 지금까지 우리가 산업사회를 바탕으로 상상했던 일 그 이상이다. 코로나19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에 속수무책이고, 각종 금융위기에 대해서도 뚜렷한 답이 없다. 만약 예전에 그랬듯이 케인즈John Maynard Keynes 같은 학자가 나와서 경제문제를 해결한다면 그는 현대판 성인이 될 것이

다. 한국의 부동산과 가계부채 문제도 그렇다. 사실 경제문제의 해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 해법이 먹히지 않기 때문이다. 구성원 각자의 이해관계가 달라서, 무엇보다 상층 기득권의 양보 없이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모두가 만족하는 그런 해법은 결코 없다는 뜻이다.

게다가 초국가, 초연결 사회가 되어 국경의 장벽이 무너지고, 네트워크를 통해 시공을 자유자재로 넘나들며 살아가는 일이 현실이 되었다. 눈에 보이는 이 세계만 세상이 아니라 가상 공간으로서 몇 개의 세상이 있는지도 상상할 수 없다. 멤버십만 갖추면 현실이 아닌 어느 공간에도 참여할 수 있다. 가상공간이 일터라는 말이다. 그래서 시간과 장소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미래는 누구도 가보지 못한 세계이기에 근본적 답을 줄 수가 없다. 단지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상상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산업화 시대의 교육이 답이 될 수 없다. 시험을 쳐서 답을 알아맞히는 일은 이제 인공지능이 더 잘할 것이다. 그런 답 맞히기식 교육은 앞으로 더는 쓸모가 없다. 현실에 닥친 문제에 대한 답을 만드는 게 정답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은 새로운 질병을 예방하는 백신을 개발하는 것처럼, 가볍고 장시간 쓸 수 있는 배터리를 제작하는 것처럼, 완고한 고객을 완벽하게 설득할 수 있는 기법을 찾아내는 것처럼, 새로운 솔루션을 만들거나 찾아낼 능력을 키워주는 일이 미래를 대비한 교육이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문제가 등장하기에 그에 대한 데이터가 없어 인공지능도 해결할 수 없다. 오로지 창의력과 문제해결력이

뛰어난 사람만이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새로운 교육의 방향이란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행착오를 겪을 각오가 되어있어야 하고, 도전에 따른 용기도 필요하다.

하지만 대부분 학부모는 원론적으로 미래의 모습과 교육 개혁에 동의하지만, 그래도 다수가 가는 길을 따라가는 일이 '안전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입시에 충실해 이른바 '스카이' 대학 정도는 졸업해야 낫다고 여긴다. 물론 공무원이나 법관, 경찰 등 사회 필수 요원은 종래의 교육 방식이 당분간 먹힐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그때가 되면 이런 직종이 인기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각자 선택의 문제이다.

어떻든 현생 교육 방식을 바꾸어야 하는 게 화두라는 점은 틀림없다. 개인이든 국가든 모두 해당한다. 앞서가려면 제도가 갖춰지길 기다리지 말고 길을 찾아야 한다. 가령 돈을 많이 버는 일이 목적이라면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직접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일단 어린 자녀에게 일만 원을 주고 어떻게 투자하든지 간에 2만 원을 만들어 오면, 부모가 보너스로 2만 원을 더 주어 4만 원을 만들고, 또 4만 원을 어디에 투자하여 8만 원을 만들어 오면 갑절을 주어 경제적 투자 능력을 키우게 해본다. 투자처는 그 자녀가 해결하도록 하며 실패도 공부니까 가능성을 열어둔다. 심부름이나 물건을 만들거나 식물을 재배해 수확을 올릴 수도 있고, 가게 일을 돕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도 돈을 모으는 방법일 수 있다. 물론 돈 버는 일이 아닌 다른 일도 마찬가지다. 직접 부닥치고 씨름해 보아야 산 지식이고 산 교육이

되고 창의성과 융통성을 발휘할 것이다. 물론 학교 교육과 병행할 수 있다.